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손 강 속

중앙승가대학교

정 소 미[†]

부산외국어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고하고자 메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함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12편을 선정하고, 각 연구에 포함된 여러 변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 주요 변인(학술지 게재 여부, 통제집단 유무, 회기 수,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 참여 세대, 참여 인원 등)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985로 나타나, 큰 효과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라서는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을 때가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 여부에 따라서는 통제집단이 없을 때의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수에 따라서는 10회 이상 실시하였을 때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에 따라서는 취업·진로관련 변인, 심리·정서관련 변인, 프로그램 만족도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참여 세대에 따라서는 두 개 세대가 참여했을 때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참여 인원에 따라서는 10명 미만이 참여했을 때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취업 지원에 시사하는 바와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주제어 :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 메타분석, 효과크기

[†] 교신저자 : 정소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과,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지 65
Tel: 051-509-5549 / E-mail : angelica66@bufs.ac.kr

서론

결혼, 임신,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개인적 성장, 생계수단,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오은진, 박성정, 민현주, 김난주, 송창용, 김지현, 2008; Faisal & Khan, 2011). 여성의 경력단절이란 여성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정 기간의 단절상태를 의미한다(김인선, 2005).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하는 비중이 크며(황수경, 2003), 결혼 이외에도 일로 인한 스트레스, 회사의 비전이나 상황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박재규, 2010).

경력단절 여성들은 경력단절의 시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와의 단절감, 사회활동의 부재로 인한 위축감으로(엄경애, 양성은, 2011), 높은 재취업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욕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취업 욕구가 54.7%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비보탬, 자녀교육비 지원, 생계유지 등의 경제적인 이유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오영신, 2018).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력복귀는 성취경험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정명혜, 2012).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직업교육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직업교육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경력복귀를 앞당기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성미, 2010; 장서영, 오민홍, 은혜경, 최미정, 정미나, 우영주, 2007).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은 진로준비 과정에서 정보탐색, 구직서류 작성 능력, 면접대응 능력 등을 갖춰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정선형, 탁진국, 2011).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은 전일제, 고임금, 사무직, 관리전문직, 서비스직을 선호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기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남성 노동자를 찾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재규, 2010; 장지연, 전병유, 2005).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은 구체적인 정보나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재취업에 뛰어들어 좌절감을 경험하고(윤혜경, 2008),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중적인 취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전연숙, 주영아, 2016).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외적인 취업과 진로준비행동 뿐만 아니라 내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진로준비 및 취업과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정서경험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 그동안 실시해온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현 시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활동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팽창을 이루어내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활동과 관련된 연구로는 크게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조사(김난주, 이택민, 강민정, 박미연, 안주희, 2013),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활동과 관련된 요구와 인식에 대한 연구(권희경, 2010; 오은진 외, 2008; 장서영, 2008), 경력단

절 여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방안과 관련된 연구(김지희, 2012; 김유경, 2013; 민무숙, 오은진, 이시균, 2010; 류호상, 장인봉, 영영배, 2013),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성(서경희, 곽원준, 심지현, 2014; 유희정, 2015; 이희정, 김금미, 2010; 최유진, 손은정, 2016)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찾아내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실시하고 있다(이영민, 노경란, 최윤선, 2009; 장서영, 안선영, 2007).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감정 중심의 그룹코칭 형태를 취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증진하였으며(최경화, 탁진국, 2017). 특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여성과 만나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특정한 대상에 맞는 유형별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최근 들어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집단프로그램의 사례와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우세하다. 황윤주와 이희수(2014)는 서울시 소재의 한 개 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김인선(2005)은 서울시에 있는 다수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경력단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적극성, 취업 준비도와 같

은 특성, 집단 프로그램 기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특성, 프로그램 실시 기관과 유형의 특성 등에 따른 효과성을 일부 검증하였다(박예슬, 2011; 황윤주, 이희수, 2014).

하지만, 각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성공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우세할 뿐(방서연, 2016; 장서영, 은혜경, 최미정, 2008),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다양한 지원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력단절 여성들은 위기감, 긴장감,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으며(이용길, 강경희, 2011), 취업한 이후에도 다시 취업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오은진, 이한나, 2013).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에도 이들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한 개 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여 다양한 사례를 포함한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점(황윤주, 이희수, 2014), 일정한 연구의 틀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지표를 단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대한 한계(김인선, 2005),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특성, 프로그램의 특성,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특성이 효과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의 한계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함의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가 처치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표준화된 효과크기로 산출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메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Lipsey & Wilson, 2001), 그 동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진 연구물들의 결과를 계량화하여 종합·고찰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Glass, 1976). 또한,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에서도 심리내적 자원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의 기존에 실시된 개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둘째, 주요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effect size)는 어떠한

가? 둘째, 주요 변인(학술지 게재 여부, 통제 집단 유무, 회기 수,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 참여자 세대, 참여 인원 등)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력단절 여성의 내적 자원에 초점을 둔 취업지원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분석대상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수집하기 위해 DBpia, eArticle, KISS, RISS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 문헌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문헌 선정에 위해, PRISMA 가이드 라인(Moher, Liberati, Tetzlaff, Altman, & the PRISMA Group, 2009)을 적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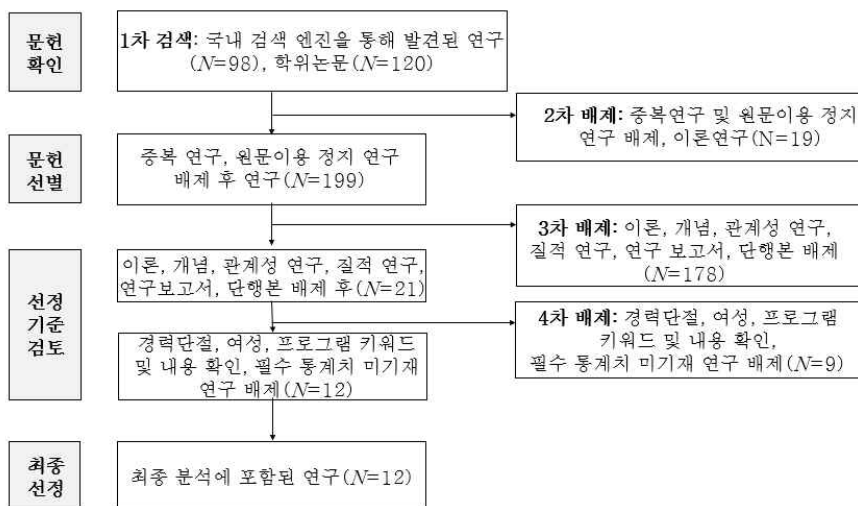


그림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과정

였다. 검색결과(2018. 05. 23), 문헌검색과 선정은 한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면서 기록을 남겼으며, 다른 연구자가 각 과정마다 남긴 기록을 검토하였고, 이견을 발견했을 때는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Littell, Corcoran, & Pillai, 2008/2011).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분석에 선정된 문헌은 총 12편이었다.

1차 검색

2018년 5월, 연구도구를 활용하여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 ‘효과’였다.

2차 선정 및 배제

문헌의 동일여부에 대해 검색엔진 별 및 통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원문이용이 중지되었거나, 학위논문이 학술지로 발간된 논문 등 제목과 저자가 동일한 연구는 학위논문을 배제하였다.

3차 선정 및 배제

제목과 초록을 검토했으며, 선정기준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배제기준은 이론 연구, 개념 연구, 질적 연구, 상관관계, 회귀분석 사용 연구,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과 같은 형태의 연구였다.

4차 선정 및 배제

전문을 검토하였고, 선정기준은 연구주제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으며, 배제기준은 연구주제, 연구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연구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연구였다. 연구에 필요한 통계치가 누락된 논

표 1. 연도별 자료 수집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의 수

	2010년 이전	2010년 이후	합계
학위논문	0	7	7
학술지	2	3	5
합계	2	10	12

문도 배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한 12편을 분석하였다. 학술지 논문은 총 7편, 학위논문은 5편으로, 학술지 및 연도별 분석 대상 논문 수는 표 1과 같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특성과 자료코딩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뿐만 아니라, 학술지 게재 여부, 통제집단 유무, 회기 수,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 참여자 세대, 참여 인원 등을 연구의 주요 변수로 하위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위해 함께 코딩하였다. 개별 연구들로부터 공통된 영역의 자료추출과 분석을 위해 코딩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연구자 외 1인의 코더가 함께 코딩하여 비교하여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코딩이 불일치 한 경우, 합의를 통해 불일치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최종적으로 코딩된 항목은 독립변수의 유형, 출판오차(publication bias)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출판 유형, 즉 학술지로 발표된 연구인지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연구인지 코딩하였고, 저자, 출판년도, 출판유형,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 통제집단 유무, 회기수에 대한 정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4.0

표 2. 분석대상의 특징

분석대상	출판유형	표본 크기	세부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통제집단 유무	회기 수
이경민 외, 2009	학술지	71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회적지지, 프로그램흥미도	유	5
장서영 외, 2009	학술지	6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취업태도, 취업준비역량	유	10
최경화 외, 2017	학술지	12	강정 중심 그룹코칭 프로그램	자존감, 구직효능감, 회복탄력성	유	6
김중희 외, 2014	학술지	12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셀프리더십	유	10
박예슬, 2011	학위논문	5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효능감, 정서적지지	무	5
이창향, 2014	학위논문	11	재취업 준비프로그램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유	8
최형목, 2016	학위논문	8	긍정심리기반 진로그룹코칭 프로그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유	6
문수이, 2016	학위논문	13	인간중심 집단미술치료	인생태도, 자기효능감	유	8
권일진, 2014	학위논문	39	생애진로설계	진로자기효능감	무	-
방서연, 2016	학위논문	7	집단미술치료	우울, 자아존중감 등	유	16
김현희, 2017	학위논문	10	진로적응성 프로그램	진로적응성	유	10
여숙현 외, 2016	학술지	15	REBT 진로 집단상담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유	8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효과크기의 계산 및 분석

메타분석에서 개별연구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연구별로 효과크기를 계

산 한 후, 개별연구 결과의 효과크기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뒤, 하위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하는 절차를 따른다(장봉석, 신인수, 2011). 본 연구의 효과크기(effect size)의 계산을 위해 사전-사후 검사(pre-post test) 결과를 사용해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인 12편의 논문 중 통제집단이 없는 연구도 포함되어 있어, 효과크기는 통제집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오픈 패키지인 ‘meta’와 ‘metafor’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12개의 연구에서 총 95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으며, 출판편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unnel plot을 실시하였다. Funnel Plot을 그림에 있어서 X축은 효과크기, Y축은 표준오차로 나타내어 연구의 분포를 시각화하였다(Borenstein et al., 2009).

동질성 검정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추출된 효과크기는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Q=635.46, df=94, p<.001$), 본 연구에서는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효과크기를 측정하고, 하위집단분석

에서 유목별 변수인 경우 분산분석이 유사하므로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요 변인들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위그룹 분석을 위한 유목화 내용

본 연구의 하위그룹 분석을 위한 유목화는 학술지 게재 여부, 통제집단 유무, 회기 수, 프로그램 효과 영역, 참여자 세대, 참여 인원 등에 따라 유목화 하였다. 회기 수, 참여 인원과 같은 연속형 변수는 연구자들이 일정한 기준으로 합의하여 범주화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학술지 게재 여부: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 나누어 유목화 하였다.

② 통제집단 유무: 통제집단이 있는 경우와 통제집단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유목화 하였다.

③ 회기 수: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물의 회기 수는 5회기~16회기로 나타났으며, 이를 범주화 하기 위하여 이미지, 장세영, 지은(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회기 수는 일반적인 집단상담의 회기 수인 10회기를 기준으로 10회기 미만과 10회기 이상으로 나누어 유목화 하였다.

④ 프로그램 효과 영역: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물들이 프로그램의 효과로 측정된 변인들을 프로그램 만족도, 심리·정서 관리 변인, 취업·진로 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유목화 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에는 프로그램 효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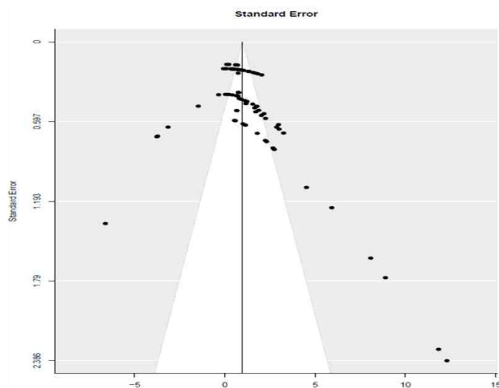


그림 2. Funnel plot

표 3. 표본 추출의 동질성 검정 결과

K ^a	Q ^b	p ^c	효과크기	95% 신뢰 구간	표준오차
95	635.46	<.001	0.7117	0.655~0.766	0.0285

^a효과크기 수, ^b동질성 검정 통계량, ^c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표 4. 프로그램 효과 영역 효과크기를 위한 효과 영역 유목화

영역	본 연구의 해당 연구명
프로그램 만족도	이경민 외(2009)
심리·정서 관련 변인	이경민 외(2009), 최경화 외(2017), 김중희 외(2014), 박예슬(2011), 문수이(2016), 방서연(2016), 여숙현 외(2016)
취업·진로 관련 변인	장서영 외(2008), 최경화 외(2017), 박예슬(2011), 이창향(2014), 최형묵(2016), 권일진(2014), 김현희(2017), 여숙현 외(2016)

을 측정한 이경민 외(2009)의 주요 변인인 주의집중, 관련성, 만족감 등이 포함되었으며, 심리·정서 관련 변인에는 자존감,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이 포함되었으며, 취업·진로 관련 변인에는 취업준비역량, 구직효능감, 구직활동적극성, 진로준비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효과 영역이 포함된 연구명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⑤ 참여자 세대: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물들은 한 개 세대가 참여한 연구부터 다섯 개 세대가 참여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한 개 세대가 참여한 연구(30대), 두 개 세대가 참여한 연구(30대와 40대, 40대와 50대), 세 개 세대가 참여한 연구(30대, 40대와 50대), 네 개 세대 이상이 참여한 연구(20대, 30대, 40대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와 60대)로 나누어 유목화 하였다.

⑥ 참여 인원: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물들의 참여 인원은 6명~71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범주화하기 위하여 10명 미만, 10명 이상 20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으로 나누어 유목화 하였다.

효과크기의 산출공식

본 연구의 효과크기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평균 차이(Cohen's *d*)에서의

평균차이(Raw mean Difference)는 $D = \bar{X}_1 - \bar{X}_2$ 통합표준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는

$$S_{within} = \sqrt{\frac{(n_1-1)S_1^2 + (n_2-1)S_2^2}{(n_1+n_2-1)}}$$

로 산출하여 Cohen's *d*(Standard mean Difference)를 산출한다(Borenstein et al., 2009). 공식은

$$d = \frac{\bar{X}_1 - \bar{X}_2}{S_{within}}$$

$$V_{d^2} = \frac{1}{n_1} + \frac{1}{n_2} + \frac{d^2}{2(n_1+n_2)}$$

효과크기의 해석

효과크기를 해석하는 기준은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 표준에 따라 효과크기 .20은 작은 효과크기, .50은 중간 효과크기, .80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결 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랜덤효과 모형으로 측정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는 0.985로 나타났으며, 전체 효과크기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0.716~1.254이었다. 효과크기가 0.8이상으로 나타나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효과크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Cohen, 1988).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주요 변인별 분석

기존의 개별연구들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에 따라 효과크기(fixed-effects categorical analysis)를 분석하였다.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 결과, 미게재 연구물의 효과크기(0.741)가 게재 연구의 효과크기(0.634)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통제집단 유무에 따른 효과크기

통제집단 유무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 결과, 통제집단이 없는 연구물의 효과크기(0.740)가 통제집단이 있는 연구물의 효과크기(0.662)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 결과, 10회기 이상 실시한 연구물의 효과크기(1.851)가 10회기 미만 실시한 연구물의 효과크기(0.649)

표 5. 전체 효과크기 결과

K ^a	Q ^b	p ^c	효과크기	95% 신뢰 구간	표준 오차
95	635.46	<.001	0.985	0.716~1.254	0.1372

^a효과크기 수, ^b동질성 검정 통계량, ^c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표 6.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게재여부	K ^a	Q ^b	p ^c	효과크기	95% 신뢰 구간	표준오차
게재	29	82.35	<.001	0.634	0.529~0.739	0.0535
미게재	66	550.26	<.001	0.741	0.675~0.807	0.0337

^a효과크기 수, ^b동질성 검정 통계량, ^c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표 7. 통제집단의 유무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통제집단	K ^a	Q ^b	p ^c	효과크기	95% 신뢰 구간	표준오차
유	61	455.85	<.001	0.662	0.571~0.753	0.0466
무	34	177.86	<.001	0.740	0.669~0.810	0.0360

^a효과크기 수, ^b동질성 검정 통계량, ^c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표 8.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회기수	K ^a	Q ^b	p ^c	효과크기	95%신뢰구간	표준오차
10회기 미만	67	393.40	<.001	0.649	0.592~0.707	0.0295
10회기 이상	28	159.45	<.001	1.851	1.605~2.096	0.1252

^a효과크기 수, ^b동질성 검정 통계량, ^c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 결과, 취업·진로 관련 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0.7551), 심리·정서 관련 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0.6781), 해당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0.6551)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세대에 따른 효과크기에 따른 효과크기

대상 세대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 결과, 두 개 세대가 참여한 연구물(1.089), 세 개 세대가 참여한 연구물(0.859), 한 개 세대만 참여한 연구물(0.766), 네 개 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0.669)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 인원수에 따른 효과크기에 따른 효과크기

표 9.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효과 영역	K ^a	Q ^b	p ^c	효과 크기	95% 신뢰 구간	표준오차
프로그램 만족도	5	0.38	0.984	0.6551	0.504~0.806	0.0771
심리·정서 관련 변인	37	210.59	<.001	0.6781	0.590~0.766	0.0450
취업·진로 관련 변인	53	422.32	<.001	0.7551	0.673~0.837	0.0419

^a효과크기 수, ^b동질성 검정 통계량, ^c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표 10. 참여 세대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효과 영역	K ^a	Q ^b	p ^c	효과크기	95% 신뢰 구간	표준오차
한 개 세대	2	0.01	0.936	0.766	0.241~1.290	0.2675
두 개 세대	32	344.23	<.001	1.089	0.871~1.307	0.1111
세 개 세대	17	67.83	<.001	0.859	0.645~1.073	0.1092
네 개 세대 이상	44	208.09	<.001	0.669	0.608~0.729	0.0308

^a효과크기 수, ^b동질성 검정 통계량, ^c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표 11. 참여 인원 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참여인원	K ^a	Q ^b	p ^c	효과크기	95% 신뢰 구간	표준오차
10명 미만	20	152.10	<.001	1.483	1.157~1.809	0.1665
10명 이상 20명 미만	33	250.31	<.001	0.815	0.655~0.975	0.0816
30명 이상	42	208.09	<.001	0.669	0.608~0.730	0.0309

^a효과크기 수, ^b동질성 검정 통계량, ^c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참여 인원 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 결과, 10명 미만이 참여한 연구물(1.483), 10명 이상 20명 미만이 참여한 연구물(0.815), 30명 이상이 참여한 연구물(0.669)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함의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동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진 연구물들의 결과를 계량화하여 종합·고찰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8년 5월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12편에서 95개의 효과를 도출하고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기존에 실시된 개별 프로그램들의 효과크기를 랜덤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전체 효과크기가

.985로 나타나 이는 큰 효과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취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메타분석 한 이현경, 김진숙(2018)의 연구에서 전체 평균 효과크기가 .966으로 높게 나타난 것, 최혜영(2017)의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진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전체 평균 효과크기가 1.717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취업·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대체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난 것과 같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도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주요변인들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학술지 게재 여부, 통제집단 유무, 회기 수,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 참여 세대, 참여 인원 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보다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학위논문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지, 장세영, 지은(2015)의 장애학생 대상 진로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와 박소연과 신인수(2011)의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낙상 예방 운동 프로

그램이 근력증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연구대상을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 게재된 경우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반대되는 맥락의 결과이다. 박상규, 신인수, 정진원(2012)이 초등학생 태권도 수련 효과에 관해 수행한 연구에서는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729)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726)의 효과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이러한 흐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충분하지 않은 전체 연구대상 수와, 현재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의 학술지를 통한 발표가 활발하지 않은 흐름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통제집단 유무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통제집단이 없는 경우 효과크기가 통제집단이 있는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이 없는 경우의 연구들은 연구 설계 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과정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처치와 집단처치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김계현, 2002).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처치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과, 통제집단을 포함하는 연구의 절차를 통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의 차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10회기 미만일 때보다 10회기 이상일 때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영(2017)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10회기 미만 보다 10회기 이상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다수의 진로결정 시기에 있는 대상에게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에서 10회기 미만의 운영이 10회기 이상보다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난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이현경, 김진숙, 2018; 임은미, 임찬오, 2003).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가 개인의 상황적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은데, 자의의 경력중단 선택이 아닌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의미 속에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정 기간의 단절상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김인선, 2005), 재취업과 소속의 욕구가 높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경력단절 여성에게 사회와 직업세계로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의 효과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취업·진로관련 변인, 심리·정서관련 변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이 재취업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취업분야 선정, 취업계획 수립, 구직기술 이해, 진로준비행동 등, 즉 취업·진로 준비와 관련된 부분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점은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회복탄력성과 같은 심리·정서관련 변인의 효과크기도 중간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다. 취업·진로가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라면, 심리·정서관련 변인은 직업인으로 내면적 변화를 시작하고 유

지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취업·진로관련 변인과 심리·정서관련 변인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세대와 연령대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인접한 두 개 세대(30대와 40대, 40대와 50대)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개 세대, 한 개 세대, 네 개 세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세대의 참여 혹은 세 개 세대 이상의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생애 사건은 일정한 연령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과 연령대와 경력단절의 기간이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세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공감과 조망을 증진하고(황여정, 변정현, 전현정, 2016), 서로를 관찰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Bandura, 1977).

프로그램 참여인원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10명 미만일 때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이상 20명 미만, 30명 이상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10명 미만의 참여자일 때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권경인, 조수연, 2013; 김신향, 김형수, 2014; 조한익, 권혜연, 2011; 하지연, 신성만, 2015).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확인하였다. 10회기 이상으로 회기를 구성하여, 취업·진로관련 변인과 심

리·정서관련 변인의 고려하고, 인접한 두 개 세대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10명 미만의 구성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프로그램을 개발에 반영한다면 경력단절 여성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같은 영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의 보고기준을 도출하고, 회기, 인원, 내용 등의 프로그램 개발기준을 매뉴얼화 한다면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연구 영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효과 크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별 연구의 특성과 효과크기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개별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즉, 결혼 유무, 경력단절의 이유, 경력단절 이전 종사 직군, 경력복귀 희망 직군,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준비도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한 효과크기를 분석한다면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된 연구들의 변인들을 계량화·유목화 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을 유목화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 심리·정서관련 변인, 취업·진로관련 변인의 3가지로 유목화 하여 분류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심리·

정서관련 변인과 취업·진로관련 변인을 따로 떼어 해당 유목에 해당되는 변인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다 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주요 요인별 분석에 있어서 요인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명확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발표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의 해석과 논의가 제한적이었다. 일정 시간 연구가 축적된 후 연구를 재 실시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경인, 조수연 (2013). 청소년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41-62.

권일진 (2014). 생애진로설계가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희경 (2010). 경력 단절 기혼 여성의 재취업 욕구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87-98.

김계현 (2002). 교육상담에서의 효과성 연구와 메타분석. *아시아교육연구*, 3(1), 131-155.

김난주 (2014). 여성의 경력단절 발생과 대책 <2013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32, 13-

27.

김난주, 이택민, 강민정, 박미연, 안주희 (201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신향, 김형수 (2014).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40(3), 77-97.

김유경 (2013).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행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 39-56.

김인선 (2005). 경력단절 여성 경력지원프로그램의 효과연구-서울지역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산업과 경영*, 12(1), 89-112.

김중희, 주용국 (2014).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HRD연구*, 16(3), 185-223.

김지희 (2012).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희 (2017). 진로적응성 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 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문수이 (2016). 인간중심 집단미술치료가 경력단절 여성의 인생태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무숙, 오은진, 이시균 (2010).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서비스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연구보고서*.

박상규, 신인수, 정진원 (2012).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운동학*

- 학술지, 14(3), 1-11.
- 박성미 (2010).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욕구형태에 따른 진로행동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2(2), 165-179.
- 박소연, 신인수 (2011).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이 근력증가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18(3), 38-48.
- 박예슬 (201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노동부 WIN(Woman Into New Jobs · Career · Life)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규 (2010).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GRI 연구논총*, 12(2), 225-252.
- 방서연 (2016). 집단미술치료가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201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정책함의. *한국정책연구*, 13(1), 51-75.
- 서경희, 곽원준, 심지현 (2014).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5(4), 57-88.
- 엄경애, 양성은 (2011).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21-40.
- 여성가족부 (2017). <http://www.mogef.go.kr/cs/cbwMain.do>
- 여숙현, 김명식 (2016). REBT 진로 집단상담이 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571-577.
- 오영신 (2018).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관련 욕구에 관한 연구-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진, 박성정, 민현주, 김난주, 송창용, 김지현 (2008).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조사 연구. 여성부.
- 오은진, 이한나 (2013). 기혼여성의 직업 이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2(1), 133-161.
- 유희정 (2015).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사고개발*, 11(1), 155-178.
- 윤혜경 (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진로 탐색 경험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4(1), 83-112.
- 이미지, 장세영, 지 은 (2015). 장애학생 대상 진로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0(3), 291-312.
- 이영민, 노경란, 최윤선 (2009).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사회적 지지 인식과 흥미도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5(2), 45-72.
- 이창향 (2014). 재취업 준비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 김진숙 (2018).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9(1), 195-216.
- 이희정, 김금미 (2010). 진로상담: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임은미, 임찬오 (2003). 국내 집단 진로지도 및

-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1(1), 3-11.
- 장서영, 오민홍, 은혜경, 최미정, 정미나, 우영주 (2007).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장서영, 안선영 (200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Andragogy Today*, 10(4), 25-45.
- 장서영 (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4, 79-104.
- 장서영, 은혜경, 최미정 (2008). 경력단절여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연구*, 21(4), 1-21.
- 장지연, 전병유 (2005).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한 정책. 노동부.
- 전연숙, 주영아 (2016). 경력단절 여성의 도움 추구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취업진로연구*, 6(4), 45-70.
- 정명혜 (2012). 중년기 기혼여성의 취업경력 지속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선형, 탁진국 (2011). 성인용 구직장애 요인 탐색 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165-1188.
- 조한익, 권혜연 (2011).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18(7), 163-183.
- 최경화, 탁진국 (2017). 경력단절여성 대상 강점 중심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자존감, 구직효능감,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1(1), 73-97.
- 최유진, 손은정 (2016).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749-768.
- 최형목 (2016). 긍정심리기반 진로그룹코칭프로그램이 경력단절여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영 (2017).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3), 289-301.
- 하지연, 신성만 (2015).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41-44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육구조사연구. 여성가족부.
- 황수경 (2003). 여성의 직업 선택과 고용 구조. 한국노동연구원.
- 황여정, 변정현, 전현정 (2016). 청소년의 세대 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황윤주, 이희수 (2014).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서울시 S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3(6), 55-7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orenstein, M., Hedges, L., Higgins,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Ltd.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behavior sciences*, (2nd ed). Hillsdale,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aisal, F., & Khan, M. M. (2011). Individual and structural determinants of intrinsic work preference among female public servants in

- Pakistan. *Australia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1(3), 63-74.
- Glass, G. V. (1976).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5, 3-8.
- Lipsey, M. W., & Wilson, D. B. (2001). *Practical meta-analysis*. Sage Publications, Inc.
- Littell, J. H., Corcoran, J., & Pillai, V. (2011).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정인숙, 전성숙, 황선경, 김동희, 하주영 역). 서울: 원서출판. (원본, 2008).
- 1차원고접수 : 2018. 07. 15.
심사통과접수 : 2018. 09. 23.
최종원고접수 : 2018. 09. 28.

A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areer-Interrupted Women's Employment Support

Shon, Kang suk

Joong-ang Sangha University

Jeong, So m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areer-interrupted women's employment support by reviewing previous research using meta-analysis. To do this, twelve related studies conducted in Korea were selected and the effect sizes of various variables included in each study were calculated. In addition, we calculated the effect size of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total effect size of the program for career-disrupted women, the main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career support program for career-disrupted women is .985,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large effect size. Second, to examine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career support program for career-disrupted women, the effect size was analyzed based on the main variables. As a result,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were published in journals, the effect size was larger when they were not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Depending on the control group, the effect size was larger when there was no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ssions, the effect size was larger whe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more than 10 sessions. The effect size of the program effect area was in the order of employment and career variable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variables, and program satisfaction. Participation generation showed a large effect size when two generations participated and there was a large effect size when less than 10 participants participated.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describe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nd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for career-disrupted women.

Key words : career-disrupted women, program, meta-analysis, effect size